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뉴스레터

제 13 호  
2023. 10.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NEWSLETTER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9월 5일(화) “일본 연구자들이 보는 북한의 대외 관계 - 사회주의국가와 비동맹국가,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일본학자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 CONTENTS

---

|                               |    |
|-------------------------------|----|
| 1. 제1차 삼청포럼 개최 .....          | 1  |
| 2. 학술활동 .....                 | 4  |
| 3. 연구서 발간 .....               | 5  |
| 4. 교수 연구활동 .....              | 9  |
| 5. 정세 동향 .....                | 11 |
| 6.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 | 12 |
| 7.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     | 18 |
| 8. 도서관 소식 .....               | 20 |
| 9. 예정사항 .....                 | 21 |



# 1. 제1차 삼청포럼 개최

---

## ① 개요

최근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속,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 증대 등 글로벌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와 소내 교수진 및 학계 초청자들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외학자초청세미나와 다양한 국내외 간담회 등을 통합하여 “삼청포럼”을 마련하였다.

삼청포럼은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긴급히 토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하여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삼청포럼이 학술·연구의 새로운 토대 마련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② 제1차 삼청포럼 결과

### 【 강의 요지 】

9월 20일 제1차 삼청포럼이 개최되었다. 강사로 초청된 강준영 교수(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는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인가?”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표에서 강준영 교수는 “한·미·일의 3자협업체 형식에 비해 북·중·러는 북·중, 북·러, 중·러의 양자관계의 합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중관계는 우호관계를, 북·러관계는 군사협력을, 그리고 중·러관계는 양자협력으로 요약

되지만, 북·중·러 삼각관계는 형체가 없는 것의 형상화라는 점에서 선택적 균열이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교수는 “한국은 북·중·러 구도에서 가장 핵심국가인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국익에 입각한 안보역량 구비와 사안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1차 삼청포럼 개최 >

## 【 토론 요지 】

- 포럼에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진과 외부 학계,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관련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
- 세계정세는 STORM의 상태로 요약됨. 즉, 1) 세계경제의 침체(Stagnation) 가능성 증대, 2) 미중 교역전쟁(Trade war) 심화, 3) 오일쇼크(Oil shock) 완화에 대한 기대, 4) 러우전쟁(Russia) 고착, 5) 미 연준의 급진적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美 바이든 행정부는 1) 미일동맹 고도화, 2) 한미동맹 강화, 3) 한미일 3각 협력 심화, 4) 쿼드 협력 가속화, 5) 오키스 가동, 6)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으로 중국 포위망을 결성

- 나토 창설 이후 최초로 나토 회원국이 10년간 추진할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명시
- 한미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에 합의
-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의 비우호적 정책이 한국과 이웃국가들 간 양자 관계를 추가 악화시킬 것”이며, “러중에 대한 봉쇄 등 미국의 패권이라는 핵심 원칙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군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하다고 언급
- 북중은 우호관계를 지속하지만 한반도 내 과도한 군사적 긴장 상승을 경계함. 북러는 연합훈련 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중러는 양자협력을 강화하지만 과도한 협력참여를 꺼리고 있음.
- 현재 중국은 러우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의 국력이 소모되고 중국에 대한 대외압박이 느슨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러우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거나 혹은 푸틴정권이 붕괴할 경우 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핵개발 고도화의 정치적 정당성을 지지할 수 있는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와 신냉전의 실체화를 희망하고 있음.
- 중국은 현재 북한을 전략적 부담보단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라는 근거로는 1) 한미일 동맹구조의 전략적 완충지대, 2) 북한의 체제붕괴가 발생하지 않을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되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해서는 경계
- 북중러 견제를 위해 한미일의 ‘안보-경제-민주’ 세갈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
- 동맹구조인 한미 동맹구조와 한중 협력구조의 차별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은 일정한 자기 안보역량 구비가 대중 관계 설정이나 협상에 유리하며 사안별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2. 학술활동

라운드테이블

일본학자 방문 라운드테이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9월 5일(화)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소재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일본 연구자들이 보는 북한의 대외 관계 - 사회주의 국가와 비동맹국가, 아시아 국가들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 하였다.

일본측 참석자인 미야모토 사토루 교수(세이가쿠인대학)가 “북한의 대 사회주의국, 대 비동맹제국 정책 개요”, 시노다 도모히토 교수(국제대학)가 “일본의 대북정책 - 대화와 압력의 한계”, 혼나 준 교수(리쓰메이칸대학)가 “인도네시아-북한 관계 - 변화와 계속”, 마쓰다 야스히로 교수(도쿄대학)가 “중국-북한 관계의 신전개 - 미중 신냉전과 중국-대만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도쿄대학)가 “북한의 중동 주요국과의 관계 - 군과 지도자” 등의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연구소에서는 박정진 서울 부총장, 이관세 소장, 강인덕 초빙석좌교수, 조진구·이상만·이병철·김상범 교수(이상 극동문제연구소)가 참석하였고, 외부 전문가로 김용민 교수(건국대), 김숙현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가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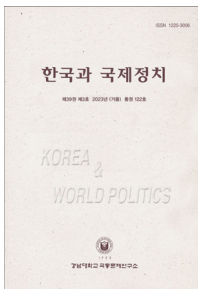


### 3. 연구서 발간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3호(가을))

2023. 9. 30.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1년에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 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제39권 제3호(가을)에 수록된 논문을 소개한다.

#### 1. 코로나 팬데믹과 독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2020~22년 경험과 논쟁에 대한 성찰

구춘권(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목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코로나 팬데믹 양상의 전개와 독일 방역조치의 변화
- III. 코로나 팬데믹과 독일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 IV. 나오는 말

##### [국문요약]

이 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독일이 걸었던 험난한 길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면서 팬데믹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고 어떤 압력에 노출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독일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전개되는 양상과 더불어 어떤 방역조치들이 등장했는지 간략히 추적하며 재구성한다. 다양한 이름을 가진 이 방역조치들의 핵심은 감염 상황이 악화될 때는 연방정부의 지휘가 강화되었고 기본권을 제한했지만, 감염 상황이 개선되면 주정부와 지방자치체로 권한이 이양되었고 기본권을 보장하려 시도했다. 제3장은 독일이라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의회제연방주의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어떤 긴장과 어려움에 노출되었는지 네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려고 한다.

첫째,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적 영역의 보호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이 포기되지 않았기에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추적과 감시 같은 기술적 대응이 등장하지 않았다. 둘째, 팬데믹을 일종의 긴급 상황으로 해석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면 연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을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정치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아니었고, 의회제라는 주권의 구성원리 안에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셋째, 팬데믹은 독일의 연방주의에도 큰 시련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연방제의 근간은 유지되었으며 감염상황이 개선되면 주정부에 방역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넷째, 팬데믹과 더불어 자유권과 생명권이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생명권의 보호를 위해 자유권을 일정 기간 유보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논리와 설득이 필요했다. 이 논리는 사회적 접촉의 자제, 즉 개인들의 자발적인 자유의 유보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식의 설득과 호소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주제어:**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위기, 독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의회제, 연방주의

## 2.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과 딜레마: 삼각 역지와 강압을 중심으로

김재학(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생)

김성현(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생)

홍건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 부연구위원)

### < 목차 >

I. 서론

II. 삼각 역지와 강압의 일반 메커니즘

III.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개념과 역량

IV. 삼각 역지와 강압 기제로서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분석

V.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향후 미중 간 군사충돌과 위기에 있어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한 영향과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고는 유사시 중국의 A2/AD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역내 국가들, 특히 역내 미국 동맹국들도 겨냥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A2/AD 전략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역내 국가들도 연관될 가능성을 반영하여 세 명 이상의 행위자에 기반한 삼각 역지와 강압(triangular deterrence and coercion) 차원에서 중국의 A2/AD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사일 전력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등을 고려할 때 본고는 중국이 A2/AD를 이용하여 삼각 역지와 강압 전략을 행사할 동기와 역량을 모두 충족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2/AD를 이용한 중국의 삼각 역지와 강압이 완전역지이론(perfect deterrence theory)과 도구적 합리성 차원에서 중대한 전략적 딜레마 문제를 가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인도-태평양, 미중 관계, A2/AD, 삼각 역지와 강압, 완전역지이론

### 3. 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함의: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안경모(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부교수)

#### < 목차 >

- I. 들어가며
- II. 냉전기의 주한미군 철수론
- III. 탈냉전기의 주한미군 용인론
- IV. 나가며: 평가와 제언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정전협정과 정전체제에 대한 연구는 그간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주로 우리의 관점에서 쓰인 연구들에 비해 북한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또한 선구적인 몇몇 연구들 역시 논의가 너무 개괄적이거나 정전과 정전협정 자체에 대한 입장들이 생략되는 한계들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첫째, 정전 이후뿐만이 아니라 정전의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포괄하고, 둘째, 논의의 명료화를 위해 정전체제에 대한 북한의 다양한 제안과 입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즉 ‘주한미군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재구성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냉전기의 주한미군 철수론에서 탈냉전기의 주한미군 용인론으로의 변화 과정과 동학을 살펴보고 특히 균형자가 아닌 안정자로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남북 간의 이견을 해소할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제어: 북한, 한반도, 정전체제, 주한미군, 안정자

### 4.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1국가론과 2국가론

배기찬(한평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 < 목차 >

- I. 머리말: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패러다임
- II. 코리아(한반도) 1국가론
- III. 코리아(한반도) 2국가론
- IV. 1국가론 및 2국가론에 따른 통일 문제
- V. 맺음말: ‘코리아 2국가론’의 확산과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

#### [국문요약]

기존의 대북정책은 크게 ‘민족주의 패러다임’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이 두 패러다임으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1국가론’과 ‘2국가론’의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에 한 개의 정통 국가만 존재한다는 ‘1국가론’은 남북 각각의 법규에 근거한다. 반면 코리아에 두 개의 합법 국가가 존재한다는 ‘2국가론’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1국가론’과 ‘2국가론’은 1948년부터 논쟁이 되었고, 통일론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났다. 오늘날 ‘1국가론’이 아니라 ‘2국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2국가론’에 입각해 서로를 공인하고, 보편적인 국제관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양독기본조약처럼 한조기본조약이 필요하고, 통일방안도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관계’에 입각한 국가연합을 목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남북관계, 1국가론, 2국가론, 통일론, 국가연합

### 5. 권위주의 정권 시기 반공주의의 유산과 한국정치: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변화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 목차 >

- I. 머리말
- II. 반공주의 약화 속 북한요인의 재래적 동원 지속: 전두환 정권
- III. 전향적 7·7선언과 북한요인의 재래적 동원의 모순: 노태우 정권
- IV. 북한요인의 전향적·재래적 동원간의 급왕래: 김영삼 정권

#### [국문요약]

이 연구의 질문은 유신체제 이후 반공주의 약화라는 점진적인 추세 속에서 전두환 정권은 물론이고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정권조차 북한요인 동원이나 친북·용공 프레임 활용에서 왜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 원인은 분단체제 하 반공주의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적 지배구조의 한계 때문이었다. 그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정치사회나 시민사회에서 민주지향성이 반공지향성을 넘어서거나 압도하지 못했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선거 시 특정 후보 공격과 지지 등 국내정치 개입이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정략적 동원이나 친북·용공프레임 설정이 먹혀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민주화 및 탈냉전은 물론이고 총체적 국력 면에서 남한의 대북 우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부터 대두된 북핵문제로 정권에 의한 북한요인의 위협 측면 동원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세 정권 시기는 이승만,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 시기와 같은 북한요인 동원의 지속과 김대중 정권 이후시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혼재되어 나타난 ‘전환의 계곡’ 또는 과도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권위주의 정권, 반공주의, 북한요인, 친북·용공 프레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 4. 교수 연구활동

| 조진구 교수 |                                                                                                                                                                                                                     |
|--------|---------------------------------------------------------------------------------------------------------------------------------------------------------------------------------------------------------------------|
| 학술활동   | 1. 2023. 9. 15.(금), IFES Brief “제2차 기시다 제2차 개조 내각 출범과 한일관계”                                                                                                                                                         |
| 언론활동   | 1. 2023. 9. 1.(금), 연합뉴스TV 출연, “[뉴스프라임] ‘불행한 과거사’ 간토 조선인 학살 100주기”<br>2. 2023. 9. 5.(화), 아주경제, “[조진구 칼럼] 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 ...일본은 역사 문제에 진지함을 보여라”<br>3. 2023. 9. 29.(금), 연합뉴스TV 출연, “[뉴스초점] 오염수 방류 후 높아지는 중국의 ‘반일’ 감정” |

| 임을출 교수 |                                                                                                                                                                                                                                                               |
|--------|---------------------------------------------------------------------------------------------------------------------------------------------------------------------------------------------------------------------------------------------------------------|
| 언론활동   | 1. 2023. 9. 5.(화), YTN 출연, [더뉴스] “김정은, 곧 러시아서 푸틴과 무기거래 논의”...북러 군사밀착 깊어지나?<br>2. 2023. 9. 11.(월), YTN 출연, [뉴스라운지] “김정은 열차 타고 이동 중”...북러 정상회담 전망은?<br>3. 2023. 9. 13.(수), KBS 열린토론 출연,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는?”<br>4. 2023. 9. 14.(목), SBS 오뉴스 출연, “북러 정상회담 종료” |

| 김상범 교수 |                                                                                                                                                                                                                                                              |
|--------|--------------------------------------------------------------------------------------------------------------------------------------------------------------------------------------------------------------------------------------------------------------|
| 학술활동   | 1. 통일연구원/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공동주최 워크숍 주제 발표<br>- 날짜/장소: 2023. 9. 6.(수), 강원도 속초 (청소년 수련관)<br>- 발표1: 남북그린데탕트를 통한 한반도 기후환경공동체 구축 방안<br>- 발표2: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과 북한 비핵화 관련 기존 합의 및 해외 사례 검토<br><br>2. 한라대학교 통일교육 특강,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와 혁신” 특강<br>- 날짜/장소: 2023. 9. 26.(화), 한라대학교 |

| 최영준 교수 |                                                                        |
|--------|------------------------------------------------------------------------|
| 학술활동   | 1. 사회통합연구원 주최, 총례신학대생 대상 남북관계 관련 특강<br>- 날짜/장소: 2023. 9. 27.(수), 총례신학대 |

## 초빙/석좌교수

###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                                                                                                                                                                                                                                                                                                                                                                                                                                                                                                                       |
|------|-----------------------------------------------------------------------------------------------------------------------------------------------------------------------------------------------------------------------------------------------------------------------------------------------------------------------------------------------------------------------------------------------------------------------------------------------------------------------------------------------------------------------|
| 학술활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경 세계지식 포럼 토론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짜/장소: 2023. 9. 14.(목), 신라호텔</li> <li>- 내용: “동북아의 격변과 대응” 토론에 좌장으로 참가, 빌트 전 스웨덴 총리, 놀란드 미국 피터슨 연구소 부소장, 쉬나이더 미국 CFR 한국국장, 중국 북경대학교 지아 칭 꾸오 교수 등과 토론</li> </ul> </li> <li>2. 국회 미래 연구원 토론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날짜/장소: 2023. 9. 15.(금), 국회 의원회관</li> <li>- 내용: “북한의 외교와 동북아” 토론 좌장으로 참가, 쉬나이더 미국 CFR 한국국장,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 박경애 교수 등과 토론</li> </ul> </li> </ol> |
| 언론활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3. 9. 4.(월),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이승만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제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li> <li>2. 2023. 9. 12.(화), 아리랑 방송 대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 주제</li> <li>3. 2023. 9. 20.(수), 코리아 타임스, “A new chapter in our trilateral relationship has begun” 제하,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li> </ol>                                                                                                                                                                                  |

### 차윤호 초빙교수

|      |                                                                                                                        |
|------|------------------------------------------------------------------------------------------------------------------------|
| 언론활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3. 9. 15.(금), 뉴스인 인터뷰, “9.13 북-러 정상회담과 ‘한미일’ vs ‘한중러’ 신냉전 가속화”</li> </ol> |
|------|------------------------------------------------------------------------------------------------------------------------|

### 이용현 객원연구위원

|      |                                                                                                                    |
|------|--------------------------------------------------------------------------------------------------------------------|
| 학술활동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23. 9. 25.(월), IFES Brief “2023년 9월 북-러 보스토치니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li> </ol> |
|------|--------------------------------------------------------------------------------------------------------------------|

## 5. 정세 동향

| 구분      | 주요내용                                                                                                                                                                                                                                                                                                                                                                                                                                                                                                                                                                                                                                                                                                                                                                                                                                                                                                                                                                                                                                                                                                                                                                                                                                                                                                                                                                                                 |
|---------|------------------------------------------------------------------------------------------------------------------------------------------------------------------------------------------------------------------------------------------------------------------------------------------------------------------------------------------------------------------------------------------------------------------------------------------------------------------------------------------------------------------------------------------------------------------------------------------------------------------------------------------------------------------------------------------------------------------------------------------------------------------------------------------------------------------------------------------------------------------------------------------------------------------------------------------------------------------------------------------------------------------------------------------------------------------------------------------------------------------------------------------------------------------------------------------------------------------------------------------------------------------------------------------------------------------------------------------------------------------------------------------------------|
| 북한정세 동향 | <p>■ 9/2: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서해상 발사</p> <p>■ 9/3(보도일자): 김정은 위원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공업발전 △해군력 강화 중요임무 강조하며, 당 중앙의 결정에 호응 촉구</li> <li>○ 군수공장에서는 추가 생산능력 조성 방향 제시</li> </ul> <p>■ 9/6~7: 김정은 위원장, 전술핵 공격잠수함 진수식 참석 및 잠수함 시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서 △기존 잠수함의 핵잠수함화 △핵추진잠수함 건조 가속화 △현대적 함선공업 창설 △함선 기관문제 해결 등 과제 제시</li> </ul> <p>■ 9/10~19: 김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의 외국 방문이자 집권 후 가장 긴 외국행으로 러시아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에 중점, 경제·과학·교육·문화 분야도 포괄</li> <li>○ 북한 내부에서는 북러 관계의 새로운 전성기라며 환영, 군사력 강화 기대</li> <li>*정상회담 약 1시간 전 미사일 발사</li> <li>○ 러시아는 북러 협력의 무해성 및 필요성을 강조</li> <li>○ 미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강력 대응 및 국제 공조 예고, 중국은 북러 밀착에 거리두며 제한된 지지 표시</li> <li>○ 미국과의 대화 포기라는 북한 대외 정책의 근본적 변화 시각 존재</li> </ul> <p>■ 9/26~27: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장애자권리보장법·관개법·공무원법 심의채택 △금융부문 법집행정형 총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개편 △조직문제 토의 등 의정 논의</li> <li>○ 김정은 위원장 연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대외 부문: △핵정책법령의 기본법화와 핵무기 고도화 △반미·반서방 연대 강화 등</li> <li>- 경제·사회문화 부문: △내각 등 경제지도기관들 및 도·시·군 인민위원회가 경제사업을 장악하고 경제발전 목표·과업 달성할 것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 달성 △새시대 농촌혁명강령 관철과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증대 등</li> <li>- 정치·조직 부문: △최근 재해방지사업에서 드러난 국가지도기관 일꾼들의 사업 무질서·무책임성·무관심성 폐단 △온 사회 공산주의적국풍 수립과 반 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 억제·통제 투쟁 등</li> </ul> </li> </ul> |

## 6.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 【 하반기 워크숍: 휴전선 접경지 등 안보 현장 답사 】

극동문제연구소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펠로들에게 안보 현장 답사를 통한 심도있는 연구 개발 기회 제공, 휴전선 접경지 탐방으로 한반도 분단역사 및 접경 지역 이해 증진 등을 위해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하반기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안보 현장으로 DMZ 생태평화공원, DMZ 두루미평화타운,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역사 등을 참관하였다.

아울러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을 초청하여 “한반도 접경지역의 정치경제: 현황, 문제와 대응방향 - 강원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특강에서는 접경지역 현황, 대한민국 대북정책 기조, 미중관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워크숍에는 전령현, 다하라 료, 안드레이 꼬브시,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 펠로와 함께 수료한 펠로인 엄파벨, 진호가 참석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이관세 소장, 임을출 교수가 참석하였다.





## 【 접경지역 답사기: 희망과 미래의 땅, ‘철원 DMZ 생태평화관광’ 】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지난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철원평야 한 가운데에서 ‘2023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반기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특강과 상호토론과 더불어 접경지역 답사도 함께 진행되어 펠로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접경지역답사는 DMZ생태평화공원, 제2땅굴, 월정역사, 철원 역사문화공원, 소이산 등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이 이뤄졌다. 철원은 용암이 빚어 놓은 드넓은 평야가 압권이다. 펠로들이 수시로 탄성을 자아낼만 했다. 접경지역 평화생태공원에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보다 시설이 크게 확충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예전보다 더욱 다양해진 데서 찾아볼 수 있었다.

접경지역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가리킨다. 이번 접경지역 관광은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철원 지역 생창리 DMZ 생태평화공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공원은 환경부, 국방부(육군 제3사단)와 철원군이 공동협약을 맺어 전쟁, 평화, 생태가 공존하는 DMZ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조성된 곳이다. 휴전 이후 지난 60년간 민간인에게 전혀 개방되지 않았던 원시 생태계가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탐방코스로 개발되어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DMZ는 세계유일의 분단 국가에 남은 냉전의 산물이고,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화약고이지만 야생의 상태로 습지와 식생이 그대로 존속되어 그 희귀성으로 매년 6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DMZ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아픈 과거의 산물이지만 이제는 희망의 땅, 미래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펠로들은 첫째날 DMZ생태평화공원 코스 가운데 용양보 탐방로를 찾았다. 용양보 탐방로는 화강 하천변 독방길을 따라 걷는 평지 트래킹코스다.

특히 휴전 이후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화강 최상류 용양보 습지 지역은 갖가지 동식물의 낙원이자 수생식물의 보고이다. 용양로 탐방로에는 해방 전후 번성했던 김화군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암정교와 도로원표 그리고 금강산 가던 철길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1931년 완공된 금강산전기철도는 경원선 환승역인 철원역에서 출발해 김화역을 거쳐 내금강까지 이르는 총연장 116km 거리이다. 당시 철원에서 금강산까지 4시간 반 가량 걸렸다고 한다. 둘째날은 DMZ 두루미평화타운, 제2땅굴, 월정역사, 철원 역사문화공원, 소이산 등을 찾았다. 철원은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각종 휘귀 철새들이 찾는 곳이다. 가마우지, 고니, 청둥오리, 두루미, 기러기 등이 대표적인 철새들이다. 철원군 DMZ는 특히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등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월동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수천마리의 기러기 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휴전선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남녘과 북녘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DMZ접경지역 여행중 여기 저기서 마주치게 되는 지뢰 표지판은 이곳이 여전히 전쟁중임을 깨닫게 한다. 한반도 DMZ 일원은 남한에 약 130만발, 북한에 약 200만발 도합 330만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통선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가 121km<sup>2</sup>이다. 지뢰제거 예상 소요기간은 489년이 걸린다고 한다. DMZ 인근 민통선 지역에는 6.25 전쟁 이후 군 작전 용도로 많은 지뢰가 매설되었다. 이렇게 매설된 다양한 지뢰가 폭우에 유실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간과 자연을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지뢰지역은 자연적으로 원시 생태계가 복원되어 이제는 동식물의 낙원이 되고 있다. 우리가 만난 현지 주민들도 지뢰밭이 그대로 방치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었다. 강원도 철원은 과거 남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지금까지 그 상흔이 휴전선으로 남아 있는 분단의 땅이다. 소련식 건축 양식의 철원 노동당사, 일제 시대 건설된 얼음창고, 은행, 농산물검사소 등 우리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한반도 한가운데 중심부에 위치한 철원군 DMZ는 한반도 생태계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으로 길이 남을 소중한 자산이다. 전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끊긴 이곳에서 수많은 동식물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우리 북한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것을 성찰하게 만들뿐 아니라 살아 있는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연구할 가치가 풍부한 곳이다. 최근 남북관계 역사의 곡절을 읽을 수도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은 만나 중무장화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그 해 9월 19일 상호 GP 시범철수,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과 역사유적 공동조사, 발굴 등을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일부 사업이 이행되었다. 철원지역에서는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 연결도로가 개설된 바도 있다. 지금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DMZ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적 공간이자,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이뤄낼 화해와 희망의 공간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화창한 가을날 우리의 아픈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두루 만날 수 있는 DMZ 생태평화공원길을 살펴보시길 추천한다. 더딘 걸음이지만 함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보자.



< 드넓은 철원평야와 백마고지, 옛 태봉국 도성지 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소이산 정상 >

## 【 펠로 3차 중간 연구발표회 】

- 날짜/장소: 2023. 9. 13.(수), 극동문제연구소
- 발표자 및 주제
  - 안드레이 꼬브시(KOVSH, Andrey): The North Korea's ties with the Indo-Pacific region: Implications for the ROK Indo-Pacific Strategy implementation
  -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TRIFOI, Bianca Patrice): “조국의 꽃봉오리:” Children, Families, and the North Korean State, 1950s-60s
- 참석자
  - 펠로: 다하라 료, 엄파벨(수료자)
  - 연구소: 이관세 소장, 김상범 주임교수, 조진구·임을출·이병철·정재욱 교수

## 【 펠로 최종발표회 및 수료식 】

- 날짜/장소: 2023. 9. 20.(수), 극동문제연구소
- 발표자 및 주제
  - 전령현(Lingxian QUAN): 김정은 집권 시기 농업법제의 주요변화와 그 특징
  - 다하라료(Tahara RYO): 전두환 정부 초기 대(對)비동맹 외교의 전개와 대북 정책: 정통성 문제의 관점에서
- 참석자
  - 펠로: 안드레이 꼬브시,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
  - 연구소: 이관세 소장, 이상만·김상범 주임교수, 조진구·정재욱·문미리 교수



< 전령현 수료패 전달 >



< 다하라 료 수료패 전달 >

## 【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연구책임자 방문 간담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9월 12일(화)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소재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해외 정책·학술 연구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연구책임자인 Steven Denney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비엔나 대학은 극동문제연구소의 지원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분단국가에서의 통합 과제와 기회 - 독일과 한국의 비교 분석(Integrat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Divide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Germany and South Korea)”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teven Denney은 비엔나 대학에서 북한학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구보고서에 대한 중간평가와 함께 연구소와 북한학센터간 학술 교류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7.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



< 9.21. 제1강,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9월 21일(목) 서울 삼청동 소재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2기 IFES 북핵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핵 위협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대주제 아래 당면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서, 동시에 해결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자 개설됐다.

이관세 소장은 이날 개강 인사를 통해 “제2기 북핵 아카데미에서는 북핵문제와 함께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안보전략과 핵 균형”을 주제로 기조강연(제1강)을 진행하고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제2기 북핵 아카데미는 12월 7일까지 총 11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 「IFES 북핵 아카데미 제2기」 강의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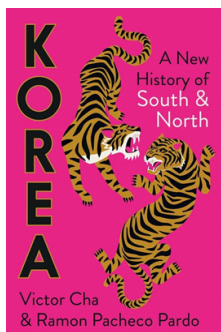
| 강의일정            | 주제 및 강사                                                                                                             |
|-----------------|---------------------------------------------------------------------------------------------------------------------|
| 제1강<br>9월 21일   | <b>[기조강연] 한국의 안보전략과 핵 균형</b><br>송민순(전 외교부 장관)                                                                       |
| 제2강<br>10월 5일   | <b>북한의 핵·미사일 현재와 미래: 핵기술 평가를 중심으로</b><br>함형필(전 국방부 북핵대응정책과장)                                                        |
| 제3강<br>10월 12일  | <b>핵 민방위</b><br>이상민(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
| 제4강<br>10월 19일  | <b>나토식 핵공유와 한반도 핵무장 가능성</b><br>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 제5강<br>10월 26일  | <b>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군비통제 로드맵</b><br>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                                                                       |
| 제6강<br>11월 2일   | <b>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b><br>전재성(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 제7강<br>11월 9일   | <b>대북 억지 전략의 한계와 발전 방향: 「워싱턴선언」을 중심으로</b><br>설인호(국방대 교수)                                                            |
| 제8강<br>11월 16일  | <b>【전문가 토론】 한국 핵무장 찬반 토론</b><br><찬성> 정성장(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br><반대> 황일순(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br>* <사회> 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 제9강<br>11월 23일  | <b>‘오펜하이머’와 핵무기에 의한 평화</b><br>이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 제10강<br>11월 30일 | <b>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협력</b><br>김 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 제11강<br>12월 7일  | <b>북한의 핵 정치동학 (수료식 포함)</b><br>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 통일부 차관)                                                         |

\* 강의시간: 19:00~21:00

\*\* 강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8. 도서관 소식

### 【 추천 도서 】



제목: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한국: 남과 북의 새로운 역사)

저자: 빅터 차(Victor Cha), 라몬 파체코 파르도 (Ramon Pacheco Pardo)

출간일: 2023년 6월

출판사: ISBN: 978-0300259810

쪽수: 288

(이미지출처: <https://www.amazon.com/Korea-New-History-South-North/dp/0300259816>)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미CSIS뿐만 아니라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저자를 초청해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한반도 이슈 관련 외교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 경남대 석좌교수 안호영 전 주미대사, 제8대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 전 주한 미국 대사 캐서린 스티븐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 총장, 미국 NK 뉴스 김정민 기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안나 파이펠드 아시아 태평양 지국장 이 이 책을 추천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은 2007년 저자 빅터 차가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타고 북한에서 서울로 향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마치 19세기부터 한반도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펼쳐 보이는 이 책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1장에서 5장까지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1950-1953)과 정전협정 이후 민주주의 국가로 향한 남한의 제도적 변화와 북한의 김씨 일가의 주제사상 강화전략을 비교하고, 6장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그리고 케이팝(K-pop)그룹 BTS, 블랙핑크(BLACKPINK)가 트럼프의 캠페인 연설 및 환경보호 캠페인에도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인류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세계는 반도체, 전기 배터리, 5G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리더인 한국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러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참석한 평창 올림픽과 2018년 4월 27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역사적 첫 만남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남북 화합의 희망을 준 것 같다고 라몬 파르도 교수는 설명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까지 각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살펴보고 여전히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의 긴장과 같은 새로운 변수가 한반도 통일은 어떠한 방향과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해답을 제시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고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현재 모습을 담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이 책을 추천한다.

<극동문제연구소 문미리 교수>



## 9. 예정사항

---

### 【 공동연구 제4차 발표회 】

- 날짜/장소: 2023. 10. 4.(수) 10:00, 대회의실
- 주제: 러시아의 핵 정치와 미·러 및 미·중·러 관계
- 발표자: 이웅현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 경남대학교 현장실습형 통일 심화교육 】

- 일정: 2023. 10. 12.(화)~13.(금), 경남대 법정관(마산), 극동문제연구소(서울)
  - 1일차(10/12): 북한영상 시청, 탈북자 간담회 (한마미래관)
  - 2일차(10/13): 극동문제연구소 소개, 소내 투어(도서관 특수자료실 등), 연구소 인근 청와대, 역사박물관 견학(서울)
- 참석자: 경남대 재학생, 관계자 약 50여명

### 【 펠로 최종 발표회 및 수료식 】

- 날짜/장소: 2023. 10. 23.(월), 극동문제연구소
- 발표 및 수료자: 안드레이 꼬브시(KOVSH, Andrey), 비앙카 패트리스 트리포이(TRIFOI, Bianca Patrice)

### 【 국제학술회의: 2023 평화포럼(일본) 참가 】

- 날짜/장소: 2023. 10. 25.(수), 일본 소카대
- 경남대, 일본 소카대, 대만 중국문화대 3개 대학 공동 개최

### 【 제2차 삼청포럼 】

- 날짜/장소: 2023. 10. 30.(월) 19:00, 대회의실
- 주제: 동북아 평화와 러시아
- 발표자: 이웅현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 2024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펠로십 모집 】

- 모집기간: 2023. 10. 4.(수) ~ 12. 26.(화)
- 연구기간: 6개월
- 펠로십 시작: 2024년 1월부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구독 회원가입 안내

### ■ 가입안내

-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 연회비 납부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재가입: 회비 만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가입문의

-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 Fax. 02-3700-0707

E-mail.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